

영국인의 아침

7월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회

말세에 처한 성도들

누 21: 29-36



김 창 인 목사

(당회장)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선 오늘날 세계 만민의 공통적인 고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곧 “이제는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20세기 후반기는 곧 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 증거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말세에는 어느 곳이나 두 가지 주의(主義)가 섞여 있고 이 두 가지 주의가 섞여 있는 곳마다 평화가 깨어지리라 하였는데 오늘날은 그 두 주의가 섞이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분명히 평화로운 나라가 없으니 말세가 된 것입니다.

스가랴 13:8을 보면, 전 세계 인구 3분의 2가 죽을 무서운 전쟁의 때가 올 것이라 하였는데 지금 세계 각나라에서 준비해 놓은 전쟁무기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이 세상 끝날에는 세상이 불로 심판 받으리라 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선 지진의 불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또 지구 표면에는 전쟁의 불이 불으려 하고 있고 공중에는 번갯불이 수없이 준비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세상을 형벌하시려고 심판의 불을 준비하셨으니 바야흐로 이 세상은 모조리 불에 탄 말세지말이 가까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처한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은 어떠할까?

① 의리도 동정도 없는 극단의 개인주의가 되어서 나보다 홀등하신 분을 모시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며 중상모략까지 하

고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동정하고 불들어 주지 않을뿐더러 멸시하고 착취까지 하는 극단의 개인주의가 되었습니다.

② 오늘날은 반역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양심의 명령부터 반역하고 자식은 부모를 거역하고 학생은 스승을 거역하고 백성들은 위정자를 거역하며 인생들은 감히 하나님마저 만홀히 여기면서 거역하는 말세가 되었습니다.

③ 지금 이 세상은 극도로 방종해져서 질서도 없고 절제도 없고 절개를 지키는 사람도 점점 줄어드는 음란하고 방종한 세대가 되고 있으니 어찌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때는 한 마디로 세상 만사가 끝이 나려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의인들과 악한 자들의 역울함을 당하는 일도 끝이 나고 성도들은 어엿이 서서, 상을 받게 되는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불의하고 잔악한 방법으로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날이 멀지않아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지구덩어리를 심판의 불로 태우시고 새하늘과 새땅을 이루어 놓으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말세지말에 처한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이 무엇이며 진정 사람으로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할 일만 열심으로 하는 이 불의한 죄악으로 끌려가는 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서 천

국을 향하여 용기있게 걸음을 내어 던져야 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생활에서 떠나 착하고 부지런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돌아서고, 악하고 거역하는 생활에서 떠나 착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서고 악하고 방종하고 음란하던 생활에서 떠나 착하고 질서있고 정결한 자로 돌아서고, 악하고 간사한 생활을 버리고 착하고 정직한 자로 돌아서고 악하고 잔인한 생활을 청산하고 착하고 인자한 사람으로 돌아서고, 극단의 개인주의로 육신을 따라가던 생활에서 내 민족과 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희생봉사하는 자리로 돌아서고, 어리석고 헛된 미신을 끊어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 위에서 살기 위하여 돌아서며, 악마를 따라 지옥으로 가던 죄수의 생활을 단연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릴 길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바로 설다가 바로 일하다가 바로 죽을 각오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성공하게 하시고 담대한 자를 만드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부귀를 주시어 일생을 유족하게 살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마음의 천국에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시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말을 당하여 위태롭고 더러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또 세상 죄악에 휩쓸려 멸망의 자리로 끌려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악세상에서 단연코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그의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선물로 주시는 크신 복들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터 천국의 평안의 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더 좋은 천국에 영접을 받아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7월의 행사

- 1 일/정기당회
- 3 일/교육위 실무자교육·정기제직회·재정위원회·편집위원회·성경학원 졸업식·지도자양성부 제11기 수업식
- 4 일~8 일/요한복음 특강(신성종 목사)
- 6 일~9 일/군중사병훈련(전위)
- 8 일/철야기도회
- 10 일/남전도회월례회·권사회월례회·산업전도회월례회·청년부헌신예배
- 11 일/교육위원회
- 11 일~13 일/농어촌파송전도대훈련(전위)
- 14 일~18 일/제 6 회 농어촌지도자 초청훈련
- 17 일/백추절·월간충현 7 월호 발행·여전도회월례회·재정위원회·선교실행위원회
- 18 일~20 일/청년부수양회
- 19 일~23 일/대학부수양회
- 24 일/구역권람회·전도위원회·중등부헌신예배
- 25 일~28 일/성경학교(새신자부·초등부)
- 26 일~29 일/중·고등부 수양회
- 31 일/선교회월례회 및 헌신예배

7월호 차례

- <말씀> 말세에 처한 성도들 / 김창인 목사 2
- <편집실에서> 또 하나의 문턱을 넘습니다 4
- <이렇게 답한다> 천국 일꾼이란 무엇인가? 5
- <특집 I> 라담회—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 고계원 6
- 김환기·백선해·이병재
정관용·한형석·천혜정
- <특집 II> 농어촌전도는 민족복음화의 큰 몫 / 정기성 목사 10
- <적분론 ③> 직분자의 기본적인 자세 / 정상우 목사 12
- <이단종교 ⑦> 안식교/윤형철 전도사 13
- <찬송가해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14
- <1200자칼럼> 절대 사랑/이형수 집사 14
- <책소개> 나를 받으소서 외 3편 15
- <도서 정보> 15
- <평가> 향상음악회 16
- <해외선교소식> 17
- <청년신앙수필> ·열일곱번/정광영 18
-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안세현 18
- <신앙수필> 사랑/조현명 장로 19
- <수필 릴레이> 예수 물랐다면/유순규 19
- <예배자료> 시편에서 즐기는 주간의 만나 20
- <구역장 노트트 ⑧> 21
- <구역소식> 21
- <교회 뉴우스> 22
- <이달에 만난 사람 ①> 김영삼 장로/편집부 25
- <기자서·표지설명> 26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27
- <실로암 못가에서> 28

우리의 신조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교회가 된다.

월간 충현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이 복음의 외침을
가쪽과 이웃과 함께
들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아세아방송(1570kHz)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또 하나의 문턱을 넘습니다

■ 이제 또 하나의 문턱을 넘습니다/월간총현이 정기적으로 발간된 지가 3년째, 30권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무적이고 자극적인 일들이 있었고, 반면에 매우 실망하고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편집진들은 피차 격려하며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방법들을 터득하며 이끌어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람들의 무관심도 물이해에도 이제 익숙해졌고 '말겨 놓으면 다 잘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주장에도 신경 안쓰게 습관이 생겼습니다.

월간총현이 마치 편집발간을 위한 짜여진 조직과 예산과 시설의 뒷받침을 가지고 발간되는 잡지로 행여 착각하고 월간총현을 다른 잡지와 비교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비판하여 알잡아보는 분들에게도 웃으며 수긍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많은 경우에 모든 일들은 결과로 평가되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로 주일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교회봉사의 특징은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와 같이 인원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어려움은 배가될 것입니다.

이제 7월호를 편집하면서 몇가지 변화를 시도해 봅니다.

권두언이 빠지고 「편집실에서」의 글이 나가고, 「이달에 뽑은 글」이 빠지고 우리교회 교역자 또는 각부서 실무담당자들이 쓰게 될 「이렇게 답한다」를 새로 시도해 봅니다. 이 난으로 일반 성도들이 알고 싶은 사항, 신앙상의 질문, 우리교회 내외의 알고 싶은 소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줄 것입니다.

또한 독자란을 신설 2면을 배정합니다. 자유로 사용할 수 있는 난입니다. 주로 1면은 대학·청년들에게 1면은 일반 모두에게 할애하려고 합니다.

주로 성경공부, 혹은 주간예배를 위해 김창인 목사님의 시편강해를 간추려 실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의 성경 강해가 글로 실리기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1주일간의 명상의 내용으로 삼으셔도 훌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일은 이성근 목사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편집자에게 온 편지」란은 주로 해외에서 온 편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 계신 교우들은 이 난을 통해 피차 교제를 나누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외에 국내에서 주평균 7~8통씩 오는 편지들도 특별한 경우에는 소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 구역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될 이야기를 구역장님이 이 면을 통해 들려주신다면 성도의 친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달에 만난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특별하게 이름이 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개해서 피차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추천할 만한 분들을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7월호를 편집하며, 금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문턱을 넘습니다.

■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지난 5월의 주일학교 지도교역자의 좌담회와 연관하여 이달에는 피교육자의 발언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훌륭한 목표와 목적, 표어 속에서 배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봄으로써 다시 한번 자성(自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금년들어 월간총현에서는 우리 주교 교육의 어떤 뚜렷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의 모든 문제점을 지도교역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면에서, 교사의 편에서 알아보고 그 바탕에서부터 다시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기독교교육은 이제 어느 특정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부가 하나로 되어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자기만이 익히 알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고 새로운 방법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전부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모두가 교육하는 사람이고 모두가 교육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 이렇게 답한다 □

천국일꾼이란?

—김창인 목사의 설교 중에서—

우리총회교회가 <천국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를 내건 것은 교회설립 10주년이 되는 1963년 9월 첫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천국일꾼을 키우자>라는 말의 뜻은 훌륭한 목사님·선교사님·전도사님을 많이 키우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일꾼을 키우자>라는 말의 원뜻은 학생은 학교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학생이 되고, 군인은 군대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군인이 되고, 회사원은 회사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회사원이 되고, 기술자는 그가 일하는 일터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일꾼이 되고, 정치가는 정치가의 위치에서 내 나라를 천국으로 건설하는 일꾼이 되고, 호주는 호주로, 주부는 주부로, 아들 딸은 아들 딸로 천국일꾼이 되어 가정천국을 이루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키우자는 말입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언제나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일꾼이 되도록 키운다는 말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는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직장에 나가서는 천국의 파괴자가 되고, 학교에 가서는 짱패 노릇이나 하는 그런 거짓 천국일꾼은 꿈에라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학교에 가서도 역시 학생으로 천국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천국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일꾼은 마치 향기를 뿜는 꽃처럼 있는 곳에서 향기를 뿜는 사람을 말합니다. 꽃은 언제나 있는 곳에서 향기를 뿜습니다. 들에서도 향기를 뿜습니다. 방안에 놓아도 향기를 뿜습니다. 공중변소에 놓아도 향기를 뿜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앉은 자리 선 자리,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천국을 건설하는 일꾼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키우기 위하여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총회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이같은 천국일꾼이 되었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봅시다.

가정에서 호주로 천국을 건설하는 일꾼이었는가?

가정에서 주부로 천국을 건설하는 일꾼이었는가?

가정에서 아들과 딸로 천국을 건설하는 일꾼이었는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일꾼이 되었는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일꾼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천국의 사람들, 어디서나 천국을 건설하는 성색한 일꾼들, 악마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곧 천국일꾼입니다.

저는 특히 젊은이들이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고 천국을 건설하는 성색한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 미리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천국의 역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이 글은 지난 6월 19일 주일 낮예배 때 있던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설교내용 중 뽑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

- ◆...교사·교재·학생, 이는 교육의 삼요소이다. 어느 하나 경시할 것이 없다. 이 세가...
- ◆...지가 상호 유기적관계가 맺어질 때 교육은 성공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교 교육...
- ◆...에 바란다」의 좌담회를 마련해 보았다. 이번에는 주교 교육의 현장에서 피교육자의...
- ◆...위치에 있는 학생 초청좌담회의 기회를 마련해 보았다. 교육의 문제점, 특히 피교...
- ◆...육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거시적인 주교교육의 방향을 제...
- ◆...시해 주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가리워진...
- ◆...장벽을 헐뿐 아니라, 교회와 젊은 학생들간의 모색지 못하던 대화가 이루어지리라...
- ◆...믿는다.

때 : 1977년 6월 19일 오후 3시

곳 : 「월간충현」 편집실

참석자 : 김환기(청년부) 백선휘(청년부)

정관웅(대학부) 이병재(대학부)

한형석(고등부) 천혜정(고등부)

사회 : 고제원(「월간충현」기자)

사회자 : 바쁘신 중에도, 「월간충현」과 진정 교회를 아끼어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특히 주교 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고·대·청년부의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과 배우고 싶은 것들과 앞으로의 교육을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교 교육의 문제점 발견과 방향설정을 위하여, 「주교 교육에 바란다」의 메아리에 사명을 받고 나오신 줄 압니다. 건설적이며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대화를 나누시어 당면한 주교 교육의 문제인식과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폭넓은 주제이지만 평소 갖고 계시던 의견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나는 이렇게 배웠다」에 대해 청년부에서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기쁨

백선휘 : 먼저 감사하며 확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교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될 수 있게 됨을 스스로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정관웅 : 저의 경우는 고등부까지는 이야기식의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구체적 의미와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교육을 받아오다가 대학부에 올라와 그 때로 약간의 토의식 교육이 되므로 말씀과 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직 대학부에서도 여전히 미흡한 가운데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케 되는군요.

말씀과 생활의 불일치

한형석 :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여 배운 말씀을 생활에 적용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즉 말씀과 생활이 연결되지 않은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환기 : 청년부에서는 성경공부를 교재로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청년부가 대학부와 다른 것은 대학부는 같은 대학생이라는 어떤 동질성이 있는데 반해 청년부의 구성원은 연령의 격차가 심하여 공부의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청년부내 충현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회원들이 오히려 모든 집회나 행사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라면서의 교육에 잘못이 있지 않았나도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조별토의에서 많은 것 배워

이병재 : 저희 대학부에서는 주일 1부 예배, 2부엔 조별토의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은 2부의 조별토의시간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것을 서로 발표하고 토의하므로 기억에 오래남고 또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합니다. 즉 듣고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에서의 메시지의 내용은 짧은 이들에게 맞는 것이면 좋겠고 2부 시간을 좀더 올바르게 이용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천혜정 : 저희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으나 유·초·중·고등부에서의 교육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몰랐으나 지금 생각하니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의 배운 것들이 지식화된 것이



<김 환 기>



<고 제 원>

지 나 자신의 것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지식 전달에만……

어떤 일에 딱치면 당황하며 알면서도 행동으로 못하고 불안해 합니다. 분반공부 시간을 이용하여 선생님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나 성경 지식 전달에만 치중하고 제한된 시간관계로 자기나름대로의 신앙관을 심어 주지 못하고 선생님이 주는 신앙이 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와요. 앞으로 선생님들께서도 자기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게끔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해요.

사회자: 예, 여러분의 이야기의 공통되는 점은 배우는 성경 말씀과 생활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교육이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듯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이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배워야 할 성경

김환기: 제가 배우면서 또한 교사가 되어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유·초등부터 중등부의 교재 내용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학년이나 나이에 맞게 가르쳐야 하는데 교재 자체가 너무 비슷하여 준비하시는 교사들도 애로가 많은 듯합니다. 또 성경을 너무 성경으로 국한시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모세의 역사가 문화사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은 모세의 민족이 세계의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성경공부를 할 때 이와 병행하여 관련학과와 연관관을 시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백선헌: 저의 경우로서는 분반공부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듯해요. 왜냐하면 평생 배워야 할 것이 성경인 만큼 성경 내의 내용은 우리가 항상 배워야죠. 문제는 선생님과 학생들간의 문제인 듯해요. 선생님들과 즐겁고, 일주일의 생활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나기보다는 분반공부 때문에 만나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겹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그러므로 생각할 나이에 유연성있는 사고방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빨리 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도자 따라 교재가 변동

이병재: 저희 대학부에서는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체제와 교재가 바뀌는 것을 겪었어요. 지도자가 바뀌어서 그동안 배워오던 것을 다 배우지도 않고 바뀌어 오하려 학생들을 방황하게 하여 교육의 연관성이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좀더 일관성있는 교재 및 행정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해요.

정관용: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교교육의 장요소는 선생님들이나 지도자의 지적인 편협성을 들고 싶어요.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대화중 마음에 안드는 발언이 나왔을 경우 성경에 근거하여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충현교회의 체제에 의해 반박을 하여 그 의견은



◇「우리는 이렇게 배웠다」좌담회 모습.

묵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게 되는데 이는 충현교회에 국한된 어떤 교육의 인상을 주는 것이 되어 오히려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백선헌: 거기서 교사의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교사가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식전달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냐 하는 교사의 포용성 즉 학생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형석: 저희들은 고등부에서 매년 교사초청 좌담회를 갖고 있는데 선생님과 학생과의 견해차가 너무 심한 듯합니다. 특히 체제에 대해 제한을 많이 하는데, 교회체제에 맞지 않기에 때문에 젊은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제한하여 못하게 되어 실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큰 교회의 단점이 교육에 장해

천혜정: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교회가 크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신입생에 대한 친근감이 너무 없고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선생님들까지 신입생에 대해 큰 관심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단체의 한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봉사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와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과 생활의 불일치의 원인으로 교재와 교사의 문제가 가장 부각된 듯합니다. 이외에도 교육자체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교회체제에 대해 여러번 지적하셨는데 교회체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만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원칙적인 체제를 감안하여 여기서도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관용: 성경과 진화론의 문제는 고등부까지는 일방적인 교육이 되어오다가 대학부에서 조별토의 시간에 토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이러한 문제를 제



<백 선헌>



<이 병 재>

타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지요.

이병재 : 제가 바로 생활학을 전공합니다(복소). 제가 생각하기는 체제상의 문제점은 구체적 예를들면 대학부의 싱얼롱(sing along)을 처음 시도할 때 어떤 분이 예배모범을 들고 나오셔서 예배모범에 싱얼롱(sing along)하라는 법이 어디 있나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너무 무리한 말씀 같아요. 그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하여 서로 이해시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텐데 어떤 하나의 제한선을 그어 두고 그 선 외에는 안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의 제한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합리적이면 올바른접촉으로 서로를 이해시키고 '안된다'라는 대답이 필요한 듯합니다.

백선헌 :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은 기성세대와 학생들 간의 생리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웃음).

사회자 : 일단은 교회체제의 문제점은 대화의 결핍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군요.

대화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들

이병재 : 단순히 대화의 결핍뿐 아니라 대화를 임하는 자세도 중요한 듯합니다.

김환기 : 제가 생각하는 서로의 양보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들이 배워온 지식과 사상들로 굳어져 있으며 나중 배운 사람들은 좀더 많은 것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배우고 접하였기에 견해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로 전진을 위해 일로 후퇴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우 적절한 말이라 할 수 있겠어요. 젊은층이 배운 지식으로 그들은 설득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정관용 : 말씀하신 것이 이미 기성세대는 굳어져 있으니 안된다, 우리가 커서 해보겠다는 식인데, 제생각 같아서는 지금도 우리교회에서 원하는 인물을 각부에 고정시키고 채워나가는 체제를 갖고 있는데 계속 그러한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지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환기 : 내가 커서 그렇게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를 이해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므로 대화를 통해 기성세대와 바꾸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자 : 대화는 기성세대를 이해하는 선결조건인 듯합니다. 대화의 모색을 젊은층에서 만들어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여 서로의 일치점을 찾자는 의견이었읍니다. 대개 「나는 이렇게 배웠다」의 문제점으로 교제·

교사·교수법·생활지도·행정조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된 듯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는 이런 것을 배우고 싶다」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싶어

백선헌 : 제가 대학생때 어떤 사람에게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서 제가 대답하기를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곳이 못된다고 답했지요. 그당시 저의 생활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지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입장이었지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교회라고 대답하시더군요. 매우 부끄러웠어요. 그후 그것을 생각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보니 참으로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느꼈어요. 요즈음 생각하면 봉사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랄지도 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요. 교회 구석구석에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듯해요.

구체적인 생활교육을 했으면

정관용 : 우리교회의 교육방침이 주일에 대한 교육을 하는 느낌을 줍니다. 평일보다 주일날 행하는 전도·헌금 등에 대한 교육만을 강하게 시키는 듯해요. 우리의 삶은 주로 평일날 학교나 직장에서 동료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 교육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에서 자유라는 개념이 어떤 자유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주었으면 하는 것이 학생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한형식 : 금년 고등부 동기 수양회 때 권사님의 신앙간증을 들었을 때 매우 은혜스러웠는데 앞으로는 선배님들의 신앙간증 내지는 후배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특히 대학부는 고등부와 청년부는 대학부와 서로 연관을 가져 상호 유기적 협력체제를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천해정 : 배워나가는 과정속에서 하나하나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의 잘못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번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도 되나 많은 경우에 해결을 못하게 돼요. 이로 인하여 생활자체가 말씀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 가고 있지요.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계몽해 주는 구체적인 생활교육이 필요한 듯해요. 예를 들면 주일성수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해요.



<정 관 용>

성수주일 더 철저히

백선헌 : 성수주일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키는 그러한 문제의 교육은 좀더 강력한 교

육, 즉 원칙을 강하게 주입시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시켰으면 해요. 이러한 가운데 개인의 갈등이 해소되고 삶이 긍정적이며 기쁜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술·담배 문제도 심각한 듯해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술, 담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양심에 가책이 되어 목사님에게서 따끔하게 혼내 주시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목사님에게서 그럴수도 있단다고 하시면서 애매한 대답을 하셔서 매우 실망(?)을 했대요(목소). 여기서 느낀 것은 어른이 되면 책임이 중요하고 어른의 입장에서 항상 강력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정관용: 만약 주일날 학원가는 문제에 대해서 학원에 안가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일성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의 대책이 없는 듯해요. 무언가 교리에 얽매인 율법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이 갈 수 있게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으면

이병재: 저는 성서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자질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이 바람직합니다.

김환기: 제가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이면서 같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강의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 보았으면 해요. 소외 문제가 단절로 인해 오는 것이므로 친구가 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 같아요.

사회자: 결국 코이노니아(친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대화·친교 아주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전해정: 친구들끼리도 한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들의 문제도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안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부르는 진정한 사랑의 친교가 있으므로 참 기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앞으로 많은 친교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김환기: 기업이나 직장에서도 친교를 위해서 부별로 교육기관을 설정하여 연관을 짓는 방향으로 경영되는데 교회자체에서도 이와같은 실제적인 교제의 방향 모색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즉 친교를 위한 환경조성이 시급한 문제인 듯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첫째 둘째 질문에 대해, 문제점에서 말씀과 생활의 불일치를 지적해 주었고 두번째는 말씀에 대한 공부하는 날 주교 교육을 통하여 배웠으나 생활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점인 듯합니다. 꼭 고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에 대해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형 석>

실력있는 교사로 구성되었으면

정관용: 주교 교육에서 교사님들께서는 틀에 매인 교재나 분반공부보다는 학생들 각자의 고민이나 문제점을 같이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과제처 줄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분이었던 하고 특히 대학부 교사님은 학생들의 학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는 실력있는 교사님이 필요해요 물론 신앙을 전제로 하고 말입니다.



<천 혜 정>

백선훈: 친교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특히 교재의 일관성이 없어 교육의 계열화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교과과정 및 교재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교사의 자질문제도 대두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일관성있는 교과과정을 계획하고 그에 맞는 교재를 편집하여 계열화된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괄성있는 교과과정이 필요

더우기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사를 위한 강좌가 자주 개설되어 교사훈련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교사는 교재 이상의 준비를 하여 진정 학생들이 원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 인식하여 채워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교육의 목표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막연히 「친국일꾼을 키우자」보다는 그 친국일꾼을 키우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각부 주일학교마다 매년 부별 교육목표를 내걸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있으나 그 교육이 얼마나 그 목표에 부합되는 교육인가는 의문시되고 있어요. 실제 학생이나 교사님들께서 각부의 해당 교육목표를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도 의문스러운 것이지요. 각부 지도자들은 그 목표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재와 목표가 거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를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 청사진을 마련하자

김환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교회 내에서 인사문제·교육문제·친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사람을 정책적으로 육성시켰으면 해요. 즉 전문화된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의 해결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고 내적 충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총현교회 교육 5개년 계획 청사진을 계획작성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러한 청사진이 준비되어 부분적으로 집행해 나갈 때 진정한 친국일꾼이 쏟아져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말씀과 생활의 불일치를 생활교육에 더욱 역점을 두어 교육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 이러한 제반의 모든 교육을 위해 범교회적인 교육의 청사진을 계획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종합되어집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교회와 지도자·교사·학생들에게 충분히 유효 인식이 되어 서로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이해하여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고 미래지향적인 총현의 주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농어촌전도는 민족복음화의 큰 몫

—농어촌전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

정 기 성 목사

<부목사·전도위원회 지도>

- ... 충청교회가 「하기봉사대」라는 이름으로 농어촌교회를 도운 것은 상당히 오래 전...○
- ...부터이다. 그러나 농어촌교회의 여름 어린이성경학교나 도와주는 이 「하기봉사대」...○
- ...는 농어촌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후유증을 더 많이 남겨 결국 부실한...○
- ...행사에 그치고 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청교회는 1972년부터 「하기봉사...○
- ...대」라는 이름을 「농어촌전도대」로 그 이름을 바꾸고 시대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농어촌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오고 있다. ...○

1. 농어촌전도는 민족복음화의 큰 몫

오늘날처럼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는 일찍이 없었다. 「대통령령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세요.」 이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드리는 기도이다. 또 30여년 동안 우리를 도와 온 미국 지상군의 철수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라면 한국이 진정 그리스도와 같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위하여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의 가사는 임으로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거짓생활과 헛된 위상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섬길 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복음화는 시급하다. 거리에서 전도하고 직장에서도 전도하고 군대에서 전도하고 학교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다각적인 전도전략을 펴서 「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고 하신 분부를 지킬 것이다. 젊은이를 위한 군인전도, 학원전도를 적극 돕고, 불우자를 위한 형제사업이나 원목사업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민족복음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전도」 사업에 무엇보다도 힘을 써야 된다고 본다.

「농어촌전도」 사업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저급까지의 우리의 이에 대한 주물들은 지교회들 세우고 가난한 교회에 건축비용 보조나 해 주는 것으로 자족했다. 그러나 농어촌교회의 발전 제해 요소를 경제적 여건에서만 보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지도자 빈곤이다. 가난과 어려운 환경여건을 딛고 합작제 일어서 알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위해 또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



<필자>

해 생명까지 바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2. 초청훈련과 농어촌전도

우리나라의 어디를 가든지 현재 교회가 없는 곳은 거의 없다. 새로이 교회를 세워야 할 곳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미 세워진 교회를 교회구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키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 특히 농어촌교회는 이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물론 농어촌교회의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문화적 여건이 도시보다 못하다고 하는데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의 뿌리는 아니다. 지금 농어촌의 경제여건이나 문화적 여건은 과거보다 훨씬 나아졌으며 앞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와 농어촌의 간격은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본다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완고한 속성을 깨뜨리고 가난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심일로를 드리며 하늘나라를 위해 봉사할 줄 아는 교인을 많이 키워내는 실력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뜻에서 충청교회는 농어촌교회를 근본적으로 부흥시켜 보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농어촌교회의 교역자와 지도자를 초청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다. 현재 충청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교회 교역자 및 지도자 초청훈련」은 민족복음화의 차원에서 이같은 농어촌교회의 발전에 가장 큰 제해요소를 해결해 보려는 의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은 세번째, 「농어촌교회 지도자 초청훈련」은 여섯번째가 되는데 주로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의 70여개 교회에서 모두 150여명이 초청되어 훈련을 받았다. 교역자는 4박 5일동안 충청교회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사명감을 위한 부흥집회와 목회연마를 위한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교역자가 초청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장로 또는 주교지도자) 2명씩을 초청하여 올바르게 교회를 섬기는 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들 교회 가운데서 조금만 도와주면 교회자립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농어촌 전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태도는 지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교회에 건축비용 보조나 해주는 것으로 자족했다. 그러나 농어촌교회의 발전 저해요소를 경제적 여건에 서만 보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지도자 빈곤이다.

약 10여개 교회를 선정하여 잘 훈련된 총현교회의 「농어촌전도대」를 파송하여 교회 소재지역을 복음의 물결로 휩쓸다. 이와 같이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총현교회의 「농어촌전도」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다목적성을 가진 전도대의 파송

해마다 파송되는 50여명의 「농어촌전도대원」은 총현교회 교인으로서 농어촌전도에 사명이 있는 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된 대원은 우리교회의 일정한 전도훈련 계획에 따라 며칠간 전도훈련을 받는다. 전도자로서의 기본훈련과 함께 각조마다 파송될 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그에 맞는 전도전략을 세운다. 한개의 조는 5~6명으로 편성되며 부흥강사 1명, 인솔책임자 1명 외에 서기·회계·보급·관리 등의 임무가 각 개인에게 부여되어 전도자인 동시에 조직의 기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같이 선정·조직·훈련·파송하는 목적은 ① 해당 파송지역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결신시키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파송되는 대원은 성경지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많은 결실을 얻게 하여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술도 잘 연마하여야 한다. ② 파송지역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도의 사명감을 일깨워주고 전도방법을 연마하게 한다. 이것은 파송지역 교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욱 중요한 일이다. 대개는 자기 일에만 쫓기던 농어촌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이 기간을 통해 교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우게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용기가 없어 전도를 못하던 파송지역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전도를 함으로써 전도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하며 훈련을 받게 한다. ③ 파송되는 전도대원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다. 도시에서 자기 일에만 도취되어 농촌의 실정을 모르고 저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없던 사람들에게 농어촌을 알게 하며 전도하며 봉사하게 함으로써 신앙면에서나 사회생활면에서 성장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농어촌전도대」의 파송이야말로 젊은이들을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일인 동시에 농어촌교회 발전의 발돋움이고 되고 복음이 필요한 백성에게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한다.

4. 올해의 계획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께 하야 펼쳐질 올해의 하기전도는 9곳에 50여명이 파송되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촌전도대의 활동모습〉

이같은 올해 전도대의 활동역점은 개인전도로 임지에 있는 전 주민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특별전도집회를 열어 대원들이 부러는 씨앗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주교강사 강습회를 열어 교사훈련도 겸하려고 한다.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를 총현교회가 부담한다.

그리고 금년 전도대원들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는 총현교회 상설전도대를 두어 훈련하고 언제든지 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전도할 수 있도록 구상중이다. 항상 일할 준비를 하고 때가 오면 즉도록 충성하는 총현교회가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 1977년 하기전도대 파송 예정지 ◇

1.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가산제일교회
2. 충남 서천군 비인면/비인교회
3. 충남 보령군 청자면/의평교회
4.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육평교회
5. 강원도 명주군 구정면/학산교회
6.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낙천교회
7. 충남 서산군 원북면/방갈교회
8. 경기도 양주군 주매면/천성교회
9. 전북 장수군 제남면/신전교회

직분자의 기본적 자세

정 상 우 목사

<부목사·교육위원장>

차례

- I. 직분자의 기본적 자격
- II. 직분자의 기본적 사명
- III. 직분자의 기본적 자세
- IV. 직분자의 기본적 교회관
- V. 각론(장로·집사·권찰·교사·성가대원)
- VI. 봉사의 원리
- VII. 봉사자가 받는 축복

지난 호에 직분자의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보았다. 이번에는 직분자가 이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봉사자의 일하는 걸모습이나 그 일의 결과보다도 봉사자의 일하는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신다(삼상 16:17; 엠 6:9). 그러기에 직분자가 어떠한 자세로 봉사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직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 자세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찾아 보도록 하자.

1.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성경에 「어린아이」란 원어 「파이스」는 소년(마 17:18), 아들(요 4:51), 종(눅 7:7) 혹은 집사, 봉사라는 뜻이 있다. 사도행전 3장 13, 26절 또는 4장 27, 30절에 보면 「종」을 「소자」로 번역된다고 「난의주」에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란 어떠한 마음인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귀한 특징은 꾸밈이 없는 진실성에 있을 것이다.

한번은 제자들이 길가다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툰 일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마 18:1-5; 막 9:33-37; 눅 9:36-48).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큰자는 곧 섬기는 자(봉사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꼭 지녀야 할 자세는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은 「진실성」이다.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며(시 51:6) 반면에 외식하는 것은 제일 미워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하셨던 것이다(마 24:23-33).

2.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마 20:28), 여기 「섬긴다」라는 원어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이었다. 예수님은 친히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다(요 13:15; 벰전 2:21). 그러므로 직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빌 2:5).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가 내게 배우라”(마 1:29)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처럼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회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것이다. 그러기에 「빌립보」 2장 3-8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꼭 지녀야 할 기본적 자세는 「겸손」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약 4:6; 벰전 5:5-6; 잠 3:34).

3. 청지기의 마음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벰전 4:10) 여기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봉사자)을 말한다. 그럼 선한 청지기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을까?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원어는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하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을까 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만일 청지기에게 주인을 위한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주인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충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꼭 지녀야 할 자세는 「충성심」이다. 이 주인을 위한 충성심이 있을 때 기쁨으로 십자가도 질 수 있는 봉사가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종들을 기뻐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시는 칭찬과 많은 것으로 더 맡겨주시는 축복을 하시는 것이다(마 25:21-30).

이처럼 믿음·사랑·소망 이 세가지는 우리 성도의 생활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처럼(고전 13:13) 「진실」 「겸손」 「충성」 이 세가지는 직분자에게 항상,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자세인 것이다.

<다음호 계속>

믿음보다 율법적 행위 강조

윤 형 철 전도사

<충동부지도·충신연구원 2년>

안식교의 본명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Seventh-day Adventists)이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교는 예배일이 토요일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교리가 정통교회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식교에 대하여 연구한 마틴 교수와 반하우스 교수는 안교식을 “구속함을 받은 형제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 칼빈대학교 교수인 웨케마 박사는 안식교는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인정하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에서 안식교는 기독교회의 4대 이단종파중 하나로 규정했다.

1. 안식교 교리문답

안식교 교리문답집(Seventh-day Adventists Answer Questions on Doctrine)은 안식교의 지도자들과, 성경 선생들, 저술가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1957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안식교 교리의 총체이며, 그들의 신앙과 생활규범이 된다. 안식교도는 물론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한편 에렌 화이트(안식교의 창시자) 부인이 저술한 문헌들을 가장 최근의 주님의 영감으로 간주한다. 이 책자를 편집한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화이트 부인의 저서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의 심령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예언하게 하였으므로 그분이 말세에 대하여 무엇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파적으로 그것들을 주님이 영감하신 것으로 받으나 결코 성경과 같이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영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다. 그러므로 안식교는 성경뿐 아니라, 화이트 부인의 저서에도 최고의 권위를 두고 있다. 화이트 부인의 저서는 「안식교 교리문답집」에 나타나 있다.

2. 그리스도의 인성(人性)

안식교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탄생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복음적인 입장을 취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이니…… 그는 신성(神性)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또한 인성(人性)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땅에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사 거기서 항상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신다”고 했다.

그러나 안식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되 인간의 죄성(罪性)까지도 그대로 지니셨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가 타락한 인간성품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련을 당하시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을 타락 전 아담의 성품과 같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가르친다.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벤전 1:19) 이

시오,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가 없으시며”(벤전 2:22), 사도 요한의 말처럼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요 3:5).

3. 그리스도의 속죄

안식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그의 구속사업이 시작되었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가 심사하여 심판하심으로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미 믿은 신자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심사통과의 기준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성령으로 중생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 표준이니 그것으로 사람의 성품과 생활이 심판대에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안식교도들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온전한 구속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심사해서 심판한 결과가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결정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28)고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는다”(엡 1:7)고 말한다.

4. 토요일 안식일 문제

토요일 안식일문제는 그들의 최대교리 중의 하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레 되는 날 쉬셨으므로 제칠일 안식일은 후에 변경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식일 계명으로 항상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으나 신약에 와서는 일주일의 첫 날을 매우 강조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주일(週日)의 첫 날을 주일(主日, <주의 날> 제 1:10)로 지켰다. 예수님께서 안식후 첫날, 곧 주일에 부활하셨고(요 20:1)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며(행 2:1), 드로아에 있는 신자들이 안식후 첫 날에 모여서 예배드렸고(행 20:7)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안식후 첫 날에 연보할 것을 부탁했다(고전 16:2). 구약에서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창조의 완성된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택정되었으나, 신약에서는 일주일의 첫날이 구속의 완성된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택정되었다. 그러므로 안식교가 토요일 안식일을 고수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요 성경해석의 오류에서 온 것이다.

120021 2002년 1월

절대사랑①

이 형 수

사랑이란 말처럼 흔한 말도 없다. 우리는 도처에서 사랑을 만난다. 유행가의 가사에서, T.V. 연속극에서, 무대 위의 배우에게서, 사랑은 우리의 주위에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모두들 자기를 나름대로의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이처럼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어쩌면 편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반면에 열려스러운 것은 사랑이 본래의 의미보다는 습관이 되고 평범해진, 마치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되듯이 일반화되어 기성품과 같이 찍혀진 듯한 사랑의 모양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완전하게 계시해 놓았지만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왜소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깊은 뜻이 인간의 언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유한하기 때문에 「아! 주님 당신은 너무나 크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한된 인간의 언어 가운데에서도 가장 넓고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말은 「사랑」인 것이다.

사랑이란 말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전부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랑이 부족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사랑이 없이는 봉사과 자선에 아무리 많은 정성과 물질을 쏟았다 해도 아무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가치도, 유익도, 깨달음도 있을 수 없기에 사랑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나아가 크리스찬이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필요나 중요성 이전에 이것은 하나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의 절대성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연습하는 듯한 사랑,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에 하는 사랑,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에는 그만 둘 수 있는 사랑들이 아닌 절대사랑이어야 한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절대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노력하지만 절대사랑만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일임을 자각하는 일이 인간을 잃지 않는 제 일이다.

찬송가 해설⑦

저 장미꽃 위에 이슬

(I Come to the Garden Alone)

(새 490; 개 456; 합 480)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 함께 다니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 「그 동산에 머물렀을 때 우리 나누는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이 배경으로 된 이 찬송이 낳게 된 직접적 동기를 제공하여 준 아담 가이벨(Adam Geibel) 박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왔다. 8세 때 피상한 안질을 앓아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으나 심령의 눈이 밝아져 모든 일을 신앙으로 승리하며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여 찬송곡과 성가곡을 많이 작곡하여 미국 종교음악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던 중 그의 무남독녀와 결혼한 사위가 나가는 제철회사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사위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신앙깊은 크리스찬 청년이요 아주 매력적인 젊은이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위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가이벨 박사는 실신할 지경에 이르러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더우기 자신은 장남으로 세상에서 당해야 할 고통은 다 당하지 않았던가?

그는 고통과 번민을 당해서 하나님께 유익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를 생각해 보았고 이 시련을 신앙으로 승리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노력하던 할수록 심령의 아픔은 더해 갔다. 참다 못해, 가까운 동료이자 이 찬송의 작사 작곡자인 오스틴 마일즈(C. Austin Miles)를 찾아가 아픈 심정을 쏟아 놓으며 위로받을 만한 감동적이고 소망과 「힘」을 주며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찬송시를 하나 써 줄 것을 부탁했다.

그날 밤 침상에 누워서도 잊지락뒤락거리며 울부짖고 있을 때 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이야, 지금은 네가 알 길이 없으나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언젠가는 명백해지리라.」 이 음성을 들은 박사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당신께서 언젠가 명백히 알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을 믿읍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마일즈에게 낱말로 말하고 자기의 방에서 말씀을 근거로 찬송을 썼고 마일즈도 그의 암실에 들어가 요한복음 10장을 읽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 이 찬송을 작사했다. 이때의 일에 대해 「1912년 3월 어느 날 사건기와 현상기와 올겐이 있던 암실에 앉아서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은 나를 매혹했고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꿇고 「람오니여!」라고 부르짖던 극적인 장면에 말없는 동참자가 된 환상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바트 그대로의 찬송시를 형성할 말들을 재빠르게 써 내려갔다. 「그날 저녁 나는 작곡도 마쳤다.」라고 말해 주고 있다.

어느 찬송보다 크리스찬의 가슴에 스며드는 그가 주신 노래가 늘 내 맘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다.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에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달 구입한 책과 이미 소장된 책들을 도서대장순에 따라 소개합니다(책명/저자(편자)/출판사).

□ 5월에 구입한 책 (6월호 계속)

- 이교도에서 기독교로/임어당/태양문화사
- 통일교원회의이단/주영훈/성결교
- 회칠한 무덤 한국교회여/김태복/철암사
- 최후의 유혹/카잔차키스 니코스/현대사상사
- 한국교회와 기독교/유동식/대한기독교서회
- 신약총론/신성종/C.L.C.
- 사랑길은 약속/라이스 H.S./보이스사
-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스튜어트 J.S./경경사

□ 간직하고 있는 책

- 표준 성경주석/박형룡/총회종교교육부
- 말씀의 능력/김석찬/대한기독교서회
- 책중의 책/H.I.헤스터/침례회출판사
- 기독교적 현상관/폴·비. 스미스/한명문화사
- 선한행지기/J.E. 딜라드/침례회출판사
- 성도중성도/김정덕/한국성서협회
- 성경의 교회/R.A. Tolley/해문사
- 대한국사(전12권)/이항근/태양사
- 구약성서주해/黑崎幸吉/박문출판사
- 주석 마태복음(상)/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주석 마태복음(하)/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주석 마가복음/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주석 요한복음(상)/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주석 요한복음(하)/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주석 사도행전/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주석 로마서/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주석 고린도서/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에베소서·갈라디아서/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데살로니가서·빌립보·골로새/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빌레몬서·디모데·디도서/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주석 히브리서/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야고보·베드로서/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요한 계시록/윌리엄 바클레이/기독교문사
- 주석 사도행전/이상근/총회종교교육부
- 주석 욥서신/이상근/총회종교교육부
- 주석 공동서신/이상근/총회종교교육부
- 주석 마태복음/이상근/총회종교교육부
- 주석 요한복음/이상근/총회종교교육부
- 주석 살전·디도/이상근/총회종교교육부
- 주석 고린도전후서/이상근/총회종교교육부
- 주석 갈라디아서·히브리서/이상근/총회종교교육부
- 주석 로마서/이상근/총회종교교육부
- 스페인전설교전집(1)/C.H.스페인/신앙에출판사
- 독백과 대화/나운영/민중서관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
.....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
.....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태로 머무는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
.....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
.....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
.....워 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중현」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미셸 그리피스 지음

나를 받으소서

4·6판/250면/550원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발행

신자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꾸려가고 특히 시간·재물·재능 그리고 생애 전부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바쳐야 할까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존 영 지음

선교의 동기와 목적

4·6판/248면/500원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발행

중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경험을 가진 저자가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선교의 기초와 동기와 목표 등을 다룬 명저이다.

보름 홀 지음

나를 보내소서

4·6판/198면/350원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발행

세제를 향한 선교의 책임이 한국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이 때에 「나를 보내소서」라는 응답은 바로 나의 응답이어야 한다.

R. 웨이번 지음

선한 싸움

4·6판/91면/130원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발행

6·25동란 때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 군복 체험담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신앙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전교회적인 행사로 발전을

급년들어 교회내 큰 음악예배는 제이성가대와 제일 성가대의 부활절 음악예배를 비롯하여 세번째로 가진 음악예배인 대학부의 제 5회 「항상음악회」가 지난 6월 4일 본당에서 많은 학생들과 성도들을 모시고 은혜중에 마쳤다. 매년 행하는 연중행사로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항상음악회의 목적과 그것을 위해 수고하신 대학부 성가대에 대해 여러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고자 한다.

항상음악회는 문자 그대로 항상되는 음악회로 이번 다섯 돌에도 일단 향상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항상음악회」의 목적은 대학부 성가대의 향상과 대학부의 향상을 위하여 젊은이들의 신앙 고백과 봉사 및 음악적 수준향상,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것에 의해 5년이란 연륜을 쌓았던 것이다.

특히 급년에는 음악회 주제가 「이 기쁨과 평화」였기에 주제에 맞게 밝고 경쾌한 음악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음악 형태인 안토니오 비발디(Antonio Vivaldi)의 영광(Gloria)을 연주케 되었던 것이다.

이 곡은 교회음악의 기본이 되는 바로크(Baroque)시대의 음악으로서 이번 대학부 성가대에 교회음악에 대한 연구열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로크(Baroque)시대적인 리듬과 대위법적인 화성을 표현케 하는 시호의 역할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번 음악회에서 발표되었던 곡들을 소개해 보면 일반성가곡과 Vivaldi의 Gloria도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일반성가곡으로는 Richard Farrant의 “기억하소서” Jean Pasquet의 “복주시는 주” Carl F. Muelle의 “길되신 주” John Stainer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C. Dickinson의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 등이었으며 이 곡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사랑의 주님’ ‘위대한 주님’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습 발표했으며 “Gloria”는 교회음악에 있어서 가장 난해하고 차원 높은 곡이어서 교회음악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곡으로서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항상 음악회의 발표광경

Antonio Vivaldi는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린 주자였던 바트스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부친에게서 음악의 기초를 배웠다. 15세에 신부가 되었으나 몸이 약해 계속 음악에 전념하게 되어 1703년에서 1740년 사이에는 베네치아 여자 교악원 겸 음악학교였던 피에타교악원에 근무했으며 이 학원의 학생 오케스트라는 그 당시 전유럽의 명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Vivaldi는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 그의 솜씨를 발휘할 수 있었다.

이번에 연주된 “Gloria”는 모두 12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Mass중에 나오는 두번째 가사인 Gloria의 원문을 갖고 작곡된 곡이다. 이것은 Vivaldi 특유의 독특한 멜로디와 리듬으로 빠르고 느리고 빠른 템포의 변화와 아울러 그의 음악을 더욱 깊고 높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게 해 준다고 한다.

연습중에 에로점은 익숙치 못한 바로크시대의 음악과 대위법적인 화성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적인 기술보다 신앙면에 치우쳐 음악회를 준비함으로 먼저 신앙의 자세로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표현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는 나타냈다고 한다. 특히 어려운 점들은 대원들의 일치된 호흡과 지휘자의 노력으로 무난히 연주했다는 것을 음악회에서 알 수 있었다.

진행상의 문제점은 대체로 없었던 듯하며 한가지 아쉬운 점은, I부 예배와 II부 음악발표회가 분리된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는 점이다. 성가대는 성가발표만 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 되지 말고 예배의 연속으로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었던 더욱 은혜스러운 음악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참석한 학생들이나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배 시간에는 비어있던 자리가 음악회가 시작하자 메워지다니 무엇이 주종이나를 따지기 이전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매우 어렵고 불안한 상황을 낳았던 것이다.

한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이와같은 큰 음악회가 어느 한 부서의 행사로 미뤄두거나, 끝나게 하지 말고 전교회적인 행사로 인식하여 상호 유기적 유대관계로 이처럼 귀한 음악회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며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타(自他)부서 행사라는 사고방식을 떠나서 온 교회적 행사로 인식하여 온 성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발전과 향상이 있을 줄 안다. 앞으로의 대학부의 항상음악회는 글자 그대로 모든 면에서 향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부는 물론 온 교회적인 기도와 후원이 아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고재원 기자>

천국확장에 힘쓰는

평신도선교사

신동수 집사와의 대화

남아메리카주 「아르헨티나」 나라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주재하고 있는 평신도선교사 신동수 집사(사진)가 사업차 그리고 선교업무 의논하는 일로 일시 귀국했다. 월간충현 기자가 신집사를 만나서 현지 사정을 중심으로 대담한 내용 중 몇가지를 여기에 실는다.



문→그 나라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종교분포 형태에 대하여 한 말씀을……

답→먼저 그 나라 이름은 「아르헨티나」가 바르다. 가끔 「알겐틴」, 「아르헨티나」하며 잘못 사용하는 이들이 있다. 국토는 남미에서 둘째가며 우리나라의 12배, 총인구 2천 530만밖에 안되나 수도에는 7백만이 몰려 있다. 일찌기 16세기에 스페인에서 독립, 가스티자노라는 스페인어가 국어인 남미 제일의 문명국이다. 농업이 성하고 목축업이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경공업 등으로 탈바꿈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포수가 공식 집계로는 약 4천 5백명이나 실제로 7천명이 거주한다고 들었다. 종교분포는 구교(가톨릭)가 90%, 신교는 5%에 불과, 구교 국가라 할 수 있다.

문→아르헨티나는 어떤 면에서 선교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답→구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 물질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정신문화는 파괴된, 그리하여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남녀노소가 십자가목걸이를 장식하고 다니지만 진실된 성도는 드문 것 같다. 이런 상황인데 5%에 지나지 않는 신교의 활동이 지극히 미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문→현재의 활동상황은? 어떤 애로가 있다면……

답→나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교회에 소속, 학생부 30~40명을 맡고 있다. 주일에 배 설교와 그들의 상담에도 응해주고,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며, 토요일 오후에는 그들과 개인방문 전도, 빈민촌에 전도 등을 하고 있다. 본부의 공헌과 월간충현·편지·주보등을 통해 사명감의 충함을 계속깊이 느끼는데, 일하는 데 한계점을 느낀다. 성경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개인사업과 선교사업 두가지 다 잘하자니 힘겨운다. 전문적인 선교사가 있어서 측면지원하는 입장이면 더 큰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선교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담선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문→앞으로의 계획,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본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답→꿈은 크고 하고픈 일은 많다. 지금의 선교지가 충

해외선교 소식

■ 홍콩

- 5월 22일 홍콩한인교회는 중고등부 창립총회, 중고등부주일학교와 동시 열려(회원 약 20명)를 발족시켰다.
- 5월 22일 성례식이 거행되었는데 학습자 10명, 세례자 9명의 결실을 보았다.
- 홍콩 주재 교제지도자들을 만나 선교관계 협의하는 중 6월 6일에는 차이나 리서치 센터(China Research Center)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중국대륙 선교를 위한 기관으로 본국의 북한선교회와 그 성격이 같다.

■ 중 동

- 할렐루야! 이집트 정착에 큰 진전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여기에서 선교활동하려면 정부의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이집트총회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번 대기 선교사 한명 지명하는 일에는 70여명의 선교사가 경합되었는데 한국 선교사인 내가 기적처럼 뽑혔다. 신교(新敎)에 입가된 선교사수는 16명인데 머지않아 한명의 공백을 예상, 미리 뽑은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학에 등록하여 학생비자를 받고 이어 선교비자를 받는 일이다. 다시 한번 감사한다.

■ 서 독

- 5월 8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근교도시인 비이스바덴(Wiesbaden)에 재독한인교회(등록교인 29명)를 세웠다. 이곳은 헤센(Hessen)주 수도로 아름다운 요양도시이다.
- 구역울 조직,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팔호안은 집회하는 날, 프랑크푸르트(수요일), 비이스바덴(목요일), 마인즈(Meinz, 금요일)
- 월간충현·주보·기독신보를 주어 읽을 때마다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받는 기분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현교회가 소원하는 남미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면 싶으나 금년에는 아까 말한 활동범주를 넘기 어려울 것만 같다. 내년에 전담 선교사 한분 모실 수 있었으면 하고 기도중이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충현교회가 이제 세계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큰 비전을 바라보고, 유능하고 젊으며 사명감 투철한 일꾼들이 남미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기도하며 힘써 달라는 것이다. 선교사업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주는 의미에서 「인도네시아의 밤」이니 「홍콩의 밤」이니 「아르헨티나의 밤」이니 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소개하며 발표하는 사업을 벌이는 일 같은 것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가끔 성도들이 보내준 편지 한장 한장이 대단히 큰 격려와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



열 일곱번

정 광 영

<고등부 2년>

“회장, 성경 몇번이나 읽었지?” “에, 두번 읽었습니다.” “아니, 대 충현교회의 중등부 회장이라는 학생이 이제 성경을 두번밖에 읽지 않았어? 우리교회 회장은 일곱 번이나 읽었는데……” 부흥집회를 이끌어 나가시던 그 때 그 목사님의 이 말씀은 나에게 심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때가 중등부 3년 교회생활에서나 학교 생활에서 회장의 직을 맡아오면서 언제나 남에게 뒤떨어지기를 싫어하였고, 내 생각으로서는 가장 잘난 것 같았던 나 자신의 교만한 태도는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다음 해,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계속 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해 11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학교에 가기 전까지 4개월 동안에 열번 읽기로 결심하고 무작정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이때 자신의 솔직한 표현은 어떤 영적인 감동이 충만했다기보다는 숫자적인, 많이 읽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걱정할 날보다 5일 후인 작년 3월 5일, 열번보다 두번이 많은 열두번을 읽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해서 시작된 나의 성경읽기 생활은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회장이라는 직분을 감싸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읽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열여섯번을 읽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이렇듯 동기가 부정한 나의 성경읽기 생활은 숫자적으로는 처음 두번보다 여덟배나 많은 것이었으나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은 알파하고 평범한 성경지식뿐, 진정으로 나의 마음속엔 참 평안과 소망은 없었고 진정한 믿음을 가져다 주진 못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던 성경읽기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린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귀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열 일곱번부터 다시 시작이다. 아니, 처음 한 번부터 다시 읽기 시작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열 여섯번의 지난 성경읽기 생활에서의 나의 교만한 태도를 용납하시고 진정한 나 자신의 회개를 들어주시어 응답 해주셨기 때문에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며, 인생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든다고 하셨다. 소들의 영화도, 고모라의 부귀도, 초로(草露)와 같지 않았던가? 이제 말려준 달란트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쓰일 수 있게 되기 위해 「열 일곱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

안 세 현

<대학부 3년>

작년에, 교회 친구들과 학교에 다니는 아가씨들과 밤에 “야학”을 1년정도 했었는데 한 여학생에게서 편지가 왔다. “선생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평화시장 어디서는 매일 12시간 작업인데, 그 사장이 어느 교회 장로래요. 그래서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고 그런대요. 그 대신에 토요일은 밤 11시까지 월요일은 새벽 1시부터 타이핑을 먹여 가면서 작업을 시킨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으로 해서 교회가 참 안 좋은 곳이라고 느꼈었는데 야학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요사이 「섬기는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많지만 점차 알게 되겠지요……”

언초에, 시골 작은 교회에 가서 그곳 전도사님과 야간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과 같이 많이 이야기한 중에 떠오르는 말, “중고등부를 따로 만들고 싶어도 교사들이 없습니다. 전부 도시로 나가버렸죠. 저도 아이들 교육문제나 생활문제를 생각하면 가끔 도시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저희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그저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거죠”

언초에 대학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떠나시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애교는 설교를 하신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했다하면 교회에 도 대체 여기에 교회가 있음으로 한국 사회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랄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선택받았다는 우리들이 존재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세가지 중에는 「참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암암리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다.

우리교회가 근 25년동안 큰 발전을 하였다. 참 감사한 일이다. 요사이 십 수억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온 교회가 힘은 기울이고 있다. 역시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참된 발전은 타인의 진정한 비판을 자기의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발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고 반면에 문제점을 지적당하는 비판도 많아진다.

먼저는 하나의 교회로서의 비가,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로서의 비가 또 나와 배가 모인 이 교회가 끝없이 문제점을 제거하고 참된 발전을 하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우리 예수쟁이의 참 모습이 저절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

□ 성도 가운데 수재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이들을 도읍시다.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연락처—교회사무실

사 랑

조 현 명 장로

<유치부 부장>

우리 성경의 사랑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사랑 및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표시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따르건만 그들은 하나님께 배신하고 심로케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의 자식일지라도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내려오심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류 앞에 계시됨으로 보이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보고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을 써서 나타내고 요한 문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사랑은 이것을 사랑이라기보다 '밀음'이라는 모양으로 표현된 것으로 친다. 이것은 아주 작아 보잘것 없기 때문이다. 옛 어른들은 「사랑은 내리 사랑이요 치 사랑은 없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대한 자식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의 만분의 일도 못된다고 아주 적음과 사랑의 하향성(下向性)을 다음 말로 보여주었다.

「어버이가 돌아가셨을 때 남산이 보이더니, 자식이 죽으니 남산이 안 보인다(눈물이 가리워서)」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수(倍數)와 분수(分數)의 접두어(接頭語)로는 테라(tera, 10¹²) 즉 1조(兆)와 아토(atto, 10⁻¹⁸) 즉 100경(京)분의 1이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람의 사랑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인간은 1957년 우주 시대가 시작된 이래 미지의 개척지로 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인간의 우주선은 차례차례로 달, 화성 그리고 금성을 향하여 불꽃의 꼬리를 내뿜고 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크기를 알아보자 그의 사랑을 헤아려 보자.

태양에 제일 가까운 별이라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측정 단위로 빛이 1년만에 지나간 거리 즉 광년(光年)을 사용한다. 빛은 1초에 18만 6천 마일(30만 킬로 미터, 3억 미터)을 지나가니까 1광년은 약 6조 마일(1테라 마일)이 된다. 우리들의 태양에 제일 가까운 별자리인 인마라는 지구로부터 약 4.3광년 거리에 있다. 또 사람이 제일 큰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반짝이는 별들은 약 100억 광년이나 먼 곳에 있다.

인마별자리나 태양은 빛의 속도로 그 거리를 지나는데 10만년이나 걸리는 광대한 2,000억개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수라고 불리는 반짝이는 성군(星群)의 일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은하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수 10억 성군의 한 개에 불과함을 볼 때 우주의 크기는 무한대(無限大)임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과연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대임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구체적으로 보였고 이것도 역시 요한 문서에서 강조하는 바이다.

또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원수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서는 값을 요구치 않으며 자기를 부정하는 '아가페'(Agape)라는 말로써 애써서 육정적이고 감각적인 '에로스'(Eros)가 전혀 쓰이지 않은 것은 주목할 일이다.

바울은 사랑의 필요성, 사랑의 본질 및 사랑의 영원성을 고린도 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사랑의 참미」라고 흔히 불리우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함과 악을 미워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함을 칭찬하셨으나 첫사랑을 잃었음에 책망하심을 명실해야 하겠다. 첫 사랑이란 첫째로 모든 일에 예수님을 중심삼는다. 둘째로, 항상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 셋째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다.

□ 수필 릴레이 □

예수 물랴다면

유 순 규

<고등부 교사>

「예수를 물랴다면」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교회 문턱을 무수히 밟고 지나다니는, 교회는 알았지만 예수는 모르고 지나가는 자칭 교인의 폐부를 찌러서 찌를 수 있는, 실감나는 말이다.

어째서 이러한 가설의 대상이 비교인보다는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다시금 교인의 위치를 합리화시켜 놓을지는 모르나 분명 세계 속의 우리의 위치는 예수와 최소한의 미상적인 만남은 누구도 경험할 수 있는 위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오늘날 나와 너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 실제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바로 인간이란,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에 뚜렷한 목적도 선전도 갖지 않는 그런 여러 원인들의 산물이라는 무신론자처럼 현대의 혼돈속에 나와 너 자신을 되워보내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해 주신 예수의 사랑이 나와 너의 통속적인 관념의 일부분으로만 묻혀버리지 않았는가!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길이라는 진리속에 나와 너의 양심은 단단한 돌문을 세워 놓고 영생자체를 부인하며 순간적 충동에 이끌려 칼라적인 위험한 길을 걷는 현대 속의 방랑자는 아닌가! 타성에 젖어든 삶의 형식이 예수를 문밖에 세워두고 진리를 덧입기 위해라는 허울좋은 헛수고를 시키지는 않는가!

연결되어 끊임없이 나오는 이 가설을 증명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삶의 사건들이 오늘도 실제로 나와 너의 몸과 마음과 부딪고 또 부딪는다. 가설이 아닌 현실로 증명된 이 말을 가설로만 존재시키지 말고 예수와의 진정한 만남에 힘써야겠다.

<다음 지명: 노문환 선생>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편 1:1—6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생활

시간적으로 영원불변한 복, 성질상으로 완전무흠한 복, 이런 복이 있는 자가 되려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좇는자는 도덕이 해이하여 책임에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고 방종한 자를 말합니다. 게으른 것은 죄중에 적지 않은 죄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살후 3:10).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심판받는 자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책임에 충성하지 않고 사명감이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는 자는 반드시 갖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의 악한 꾀를 좇지 않아야 복을 받습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권세가 좋아도 아침하지 말고 그런 자의 명령이나 지령을 악인 줄 모르고 따르면 바보요 알고도 따르면 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생활에 위험이 와도 악인의 가증하고 악독한 꾀를 거절하여 화를 면하고 복을 받으므로 이 하루도 승리의 생활을 살시다.

시편 2:1—12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생활

「그 아들에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과 입맞추라”는 말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어 심판하실 예수님을 영접하란 말입니다. 믿고 화복하란 말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신 은혜는 감사하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신 사명에 인내로 충성하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즉 죽기 전에 세상에서 망합니다. 지옥 가기 전에 벌써 당하는 겁니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 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진노의 철장을 드시고 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여 교만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화복함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복받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과 화복하지 않고 죽이더니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

다. 하물며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날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생활을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생활을 하여 복받는 삶을 살시다.

시편 3:3—4

여호와께 부르짖는 생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① 「주는 나의 방패시요」

많은 사람은 나를 미워하여 죽이려 하여도 그러나 나의 방패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면 온 천하의 보호보다 더 든든합니다.

② 「나의 영광이시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영광은 이 세상에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구름이 일시 태양빛을 가리우나 잠시 후에는 태양의 광채를 막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을 막을 자 없습니다.

③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여호와와는 양을 치면 목동인 다윗을 높이 들어 주시었고 여호와와는 사울왕의 난도 피하게 하시었고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의 난도 피하게 하시었습니다. 다윗을 도와 주신 여호와와는 지금 내가 간구할 때에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 것입니다. 현재에도 불로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와는 나의 소망 나의 승리 나의 위로 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림없이 그 성산에서 들어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4:1

환난중에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는 이 안타까운 사정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나를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하나님 더욱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은 「환난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이 자기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얼마나 많은 곤란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그럽게 대접하여 주시었다. 어려운 환경을 너그럽게 하여 주시었다. 지금도 도란 중에 있는 나를 자비하게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병력이 없고 식량이 없고 계획도 없는데 그러나 원수는 많고 환경은 험하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도 모르는 다윗은 과연 도란중에 있으나 그의 마음은 너그럽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저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자기를 의롭게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그는 기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구역소식

축하합니다(6월중 결혼)

- 최순해양/최순복 전도사 동생—4일 퍼시픽호텔
- 추덕수군/추관서씨 안교섭집사 장남—4일 영빈관
- 이혜선양/이상록씨 이영주 권사 2녀—9일 충현교회
- 이상익군/대학부교사—20일 기독교 태화관
- 오명희양/오중락 장로 손녀 김영자 집사 2녀—24일 영락교회

위로드립니다(6월중 별세)

- 김지진씨/김관옥 집사 부군 31일(5월)
- 문봉덕씨/문명숙 권사 부친 10일
- 임병섭씨/황규선 권할 3남 12일
- 김학익권사/이임상 집사 모친—21일
- 장일성씨/태능구역—21일
- 김기일 집사/이덕순 권사 부군—22일

이민가신 분(6월중)

- 민인자 집사—25일 미국으로
- 지소저 권사—17일 브라질로
- 천요상씨—18일 미국으로
- 양순돌 집사—18일 미국으로
- 우복용씨—20일 콜롬비아로

전교회 성경암송대회 안내

일 시: 1977년 9월 4일(주일) 오후 3시

장 소: 충현교회당

대 상: 충현교회 모든 성도

내용과 범위: 요한복음 13장—16장

영아부—요 15: 1—8

유치부—룻만 요 15: 1—17 열매반 요 15: 1—20

유년부—1년 요 15: 1—27

2년 요 15: 1—27; 16: 1—4

3년 요 15: 1—27; 16: 1—11

초등부—요 14장, 15장

노년부—요 14장, 15장

중등부 이상—요 13장, 14장, 15장, 16장

방 법: 지정범위 성구암송으로 개인출전

시 상: 전장암송상, 각부분 우수상, 최우수구역상, 참가상

문의처: 교육위원회 행사분과 (전화 29-7726)

구역장 노우트⑧

신앙지도의 지침(10)

백성룡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5. 사회생활

지난 6월호까지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말은 일단 끝을 맺었다.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1) 사회생활에 대한 신자의 자세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응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응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호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고전 5:9~10)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의 성별된 생활이 사회를 등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했다.

다른 말씀에 비취어서 좀더 이 말씀을 적극적인 면에서 받아들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기피하거나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구제할 방도를 찾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된다. 이같은 자세는,

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땅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엇인가 불신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 「빛」과 「소금」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죄악의 암흑한 사회를 비추어 주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죄악으로 썩어지고 썩어 가고 있는 사회에 들어가서 새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화된 생활로 감화를 주어야 한다.

②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

인간사회는 곧 생활경쟁의 싸움터다. 생존을 위한 싸움과 갈등과 긴장 그리고 불안의 연속으로 소용돌이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 이런 치열한 싸움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싸움터로 바꾸어 선한 싸움의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평소의 경건생활과 그 연습에서 모든 사회악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이 사회에 심어주어야 할까 하는 선교적인 과업에 충실해야만 한다.

③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나 주변에서 일어난 자기와 관계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성실하게 그 일을 다루어야 하며 책임지고 그 일의 결말이 아름답게 매듭지어 가도록 해야만 한다.

(다음호에 계속)

능력주시는자 안에서 모든일을 할수있느니라



—새 성전건축을 위한

저금통 갖기 운동 벌여—

교회 건축위원회(위원장 김기정 장로)는 어른으로부터 영아부의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중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새 성전건축헌금 모금에 참여하여 정성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7월 3일부터 한 사람이 저금통 한개씩 갖기 운동을 시작하여 1차적으로 8,000여개를 나누어 주었다. 보잘것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뱃새다의 기적이 이 세대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이같은 운동을 시작하였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특별히 이 운동을 실천함에 있어 가족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금통 한개씩을 가지고 새 성전건축을 목표하고 기도하며 적은 돈 10원이라도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매일 정성을 다해 모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매일 하루에 한번씩 중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우리의 새 성전건축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려는 데 뜻이 있다고 한다. 이미 새 성전건축을 위하여 15억원의 목표를 정하고 지난 5월 15일 전교회적으로 특별건축헌금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거룩한 예배처가 되며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는 훌륭한 천국일꾼 교육·훈련장으로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설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담당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실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아직껏 새 성전건축 허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얻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줄 것을 거듭거듭 부탁하고 있다. 오는 7월 하순경에 또 다시 서울특별시의 건축관계 심의회에서 우리교회 새 성전건축허가 여부를 놓고 논의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들의 모임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어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 특별히 해외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도 새 성전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주시길 것을 교회는 부탁드립니다.

통일촌에서 통일기원예배

—지난 6월 25일

260여 성도들 모여—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통일기원예배가 북한선교회(이사장 김창인) 주최로 지난 6월 25일 27년전 피비린내나는 격전지였던 서부전선의 통일촌에 있는 통일촌교회(중현교회가 통일촌주민과 내외의 전방시찰자들의 기도처로 1974년 설립하였다)에서 있었다. 대다수의 중현교회 성도가 참석한 이날 예배에는 26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이환선 목사가 설교를, 최복규 목사가 대표기도를 하였다. 특히 예배 후에 있었던 군사분계선 시찰과 영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조국 국토분단의 쓰라린 현실을 다시한번 실감하며 반공정신에 불탔고 손에 잡힐듯 내려다 보이는 10km 떨어진 개성시내 앞에 높이 40m의 금빛나는 김일성 동상이 서 있다는 안내장교의 설명을 듣고 아함왕과 같은 김일성 치하에서 고통을 받는 북한동포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다.

또한 이날 오후 3시부터는 「77년 민족복음화 성회」가 주최하는 「6·25 상기 남북통일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임진각에서 8,000여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열렸

는데 조국통일을 기원하며 민족의 장래를 위해 목이 메이도록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복덕 하늘 끝까지 힘차게 메아리쳐 갔다. 이 집회를 위하여 우리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여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 되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었다.

노이삼집사 선교비 보내와

—미화 100\$을

해외선교 위해 써달라고—

지난 1974년 미국으로 이민간 노이삼 집사가 지난 6월 고국을 방문한 임현덕 장로를 통해 미화 100\$을 해외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보내왔다. 현재 미국 시카고의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노이삼 집사는 멀리 고국을 떠나 이역 멀리에서도 항상 고국과 교회의 중현교회를 위해 힘이 되어 보겠다는 뜻 가운데에서 이같이 선교비를 보내었다고 한다. 해외선교회(회장 위영환 장로)는 이같은 노집사의 뜻을 살리며 높이는 뜻에서 보내온 헌금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리라고 한다.

노 집사는 본교회에 있을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남전도회 임원으로 또는 구역장으로 충성된 봉사를 한 바 있다.

주교운영 실무자교육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계절학교 위해—

올해 주교 각부의 계절학교(여름) 운영을 위한 실무자교육이 지난 7월 3일 오후 유년부실에서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34명(남 19, 여 15)의 주교 각부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실시된 이날의 교육은 행사분과와 재정분과에서 담당하여 실시하였다. 특별히 1977년 계절학교(여름) 실시결과를 종합·평가하여 1978년 계절학교(여름) 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별지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실시된 교육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부가 계절학교(여름)를 끝낸 후 적어도 2주 이내에 보고서를 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할 내용은 ① 행사개요보고서 ② 재정보고서 ③ 자체종합평가보고서 ④ 계절학교(여름)일지 ⑤ 각부에서 제작 사용한 유인물 일체 등 모두 5가지이다. 그런데 이같은 모든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요령은 교육위원회에서 각 부별로 통보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재정분과에서는 이번 계절학교(여름) 실시 후에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각부 회계는 이번 계절학교(여름) 회계를 특별 회계로 취급하여 시달된 지침대로 성실히 준비하여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김영한 박사 13일 귀국

본교회에서 대학부·청년부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지난 1971년 6월, 서독으로 철학·신학을 연구차 떠났던 김영한 박사가 7월 13일 오후 3시 30분,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와 많은 교우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김포공항에 내렸다. 김박사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총회신학대학에 진학중 서독에 유학갔던 것인데,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3년 전 「현상학과 신칸트주의의 비교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계속 신학을 연구 「기독교적 현상학」(부제=기독교적 인식론의 방법론적 연구)이란 신학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돌아왔다. 귀국 전에는 제하임복음신학교의 초청교수를 역임한 바도 있다.

김창인 목사 인도하에 도착에배를 드리고 월간충원 기자와 만난 김박사는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모교인 서울대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김목사님의 말씀처럼 성공하고 온 것이 아니며, 이제부터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 조국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교회에서는 젊은 지성인들과 자유주의신학을 비판하며 칼빈주의를 정리하는데 힘쓰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굳은 결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김박사는 작년 당회장이 유럽에 갔을 때 보라해 주었고, 근간에는 서독의 육요기 선교사와 박용삼 평신도선교사에게 많은 협조를 해왔다. 아직 미혼중인 김박사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한다.

성경학원 졸업식

—연구반·보통반과 함께 지도자양성부 수료식도—

충원성경학원(이사장 김창인, 원감 신체택)의 연구반(제2회)과 보통반(제3회)의 졸업식이 지난 7월 3일 주일저녁 예배 후 본당에서 성도 다수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번엔 3년간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 2명(김종태, 정영희)과 2년간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 1명(최혜석)외에 아울러서 이날 78명에 대한 제11기 지도자양성부 수료식도 거행하였다.

충원성경학원은 본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난 1973년 9월 18일 개교하여 그간 많은 주일학교 교사를 배출하였고 평신도의 성경연구와 자질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현재 60명(보통반 48명, 연구반 12명)이 성경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지도자양성부(6개월 과정)는 오는 9월에 제12기생을 모집하여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춘계대심방 결과보고

—구역권찰회에서 지난 6월 당회에—

구역권찰회(회장 백성룡 목사)는 지난 6월 정기당회에 1977년도 춘계대심방 결과를 보고하였다. 3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된 이번 춘계대심방 기간에는 총 2,489세대 가운데 1,926세대(5,735명)를 심방하였고 이를 위하여 5명의 목사(백성룡·김재창·정상우·김종택·김하진)와 5명의 여전도사(이두란·최순복·강봉선·구명신·김용선)가 헌신하였다. 각 지구별 총세대수와 심방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제1지구/총537세대 중 399세대 심방 제2지구/총501세대 중 417세대 심방 제3지구/총508세대 중 432세대 심방 제4지구/총465세대 중 352세대 심방 제5지구/총478세대 중 336세대 심방하였다.

조찬기도회 인도

—당회장 김창인 목사 내외 요인들 모임에서—

미군철수에 대한 한국성도들의 결심을 다짐하는 조찬기도회가 지난 7월 14일 서울 시내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서울지구 각 교단의 목사, 육해공군 책임자, 주한공판대표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난국에 처한 성도의 자세/성경 딤후 1:7,8」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토막소식

- *...우리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본국 사정으로 오는 9월 초에나 출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지난 7월 4일-5일에는 대전에서, 7월 11일-12일에는 대구에서 각각 민족복음화 성회를 인도하였다.
- *...건축위원회는 7월 하순에 있을 새 성전건축허가문제를 놓고 서울시의 심의를 위해 간곡한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 *...미국으로 이민갔던 임현덕·지창욱 장로가 지난 6월 고국을 일시 방문하였다.
- *...해외복음선교회는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내외 본국 위로휴가를 8월과 9월 2개월간 허락하기로 하였다.
- *...아르헨티나의 신동수 평신도 선교사가 지난 6월 말 사업차 일시 귀국하였다.
- *...도서관의 보고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총현도서관 보유 장서의 총수는 2,381권으로 나타났다.
- *...교회 서무부는 김우진(1947년 2월 19일생)씨를 7월 1일부터 교회 사관으로 채용하였다.
- *...교회 서무부는 치료중에 있는 사할 한종택씨를 위해 기도와 위로를 부탁하고 있다.
- *...당회는 7월 1일부터 제일성가대 지휘에 김광식 선생(전 여성성가대 지휘)을 임명하였다.
- *...당회는 7월 1일부터 여성성가대 지휘에 최찬후 선생(전 청년성가대 지휘)을 임명하였다.
- *...제이성가대는 오는 7월 18일-20일에 천마산에 있는 상명수양관에서 정상우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하기수양회를 연다.
- *...여성성가대는 오는 7월 19일 천마산에 있는 상명수양관에서 하기수양회를 연다.
- *...수도노회 주교연합회가 주최한 교사강습회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우리교회에서 열렸는데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사 70여명이 참가했다. 이 강습회에 350개 교회에서 1,700여명의 교사가 참가했다.
- *...새신자부(장년)의 전반기보고(1월-5월)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에 수료한 사람은 모두 41명이며 학습자가 28명이었다. 이

가운데 청년부로 27명, 장년부로 15명, 기타 4명으로 되어있다.

- *...새신자부(장년)는 7월 10일 새신자부실에서 학생신앙강화를 연다.
- *...새신자부(어린이)는 7월 3일 정기 등반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유치부는 7월 29일 유치부실에서 여름 어린이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철야기도회를 연다.
- *...유년부는 7월 18일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철야기도회를 연다.
- *...초등부는 7월 24일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철야기도회를 연다.
- *...중등부는 7월 중 유년부실에서 중등부 임원수련회를 연다(강사 이양우 선생)
- *...중등부는 7월 24일 헌신예배를 드리며 아울러 이날 낮 시간에는 각반 대항 찬송가경연대회를 연다.

우리의 매일기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베드로전서 4장 7절

- ☐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 새 성전건축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 총현기도원 건축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 해외 선교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 여름행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를 연다.

- *...중등부는 7월 22일 유년부실에서 하기수양회를 위한 교사 준비기도회를 연다.
- *...고등부는 7월 3일 2부교사실에서 자제 신입교사훈련을 실시하였다.
- *...산업전도교육부는 7월 17일 각조별로 조별찬교회를 열며 아울러 조강훈련도 실시한다. 또 7월 18일-31일에는 각 학생의 직장과 가정을 심방하는 학생 일제심방을 실시한다.
- *...대학부는 7월 13일 영아부실에서 하기수양회를 위한 임원준비 기도회를 연다.
- *...청년부는 지난 7월 10일 이성근 목사를 강사로 헌신예배를 드렸다.
- *...독일의 육호기 선교사와 박용삼 집사를 돕고 서독한일교회를 위해 많은 협력을 한 김영한 박사가 지난 13일 귀국하였다.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7. 7. 3 현재(매월 첫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주 일	I II III IV	
예 배	주 일 낮	207	368	575	예 배	I II III IV	115,455
		403	1,016	1,419			272,100
		272	514	786			184,085
		88	220	308			43,815
배	주 일 저녁	243	393	636	배	주 일 저녁	2,999,130
		111	376	487			453,700
주 일 학 교	새 신 자	33	28	61	주 일 학 교	새 신 자	275,000
		26	60	86			37,000
		71	73	144			35,000
		61	95	156			2,181,799
학 교	아 지 년	173	151	324	학 교	아 지 년	
		62	166	328			2,185
		191	128	319			21,210
		142	148	290			17,245
학 교	유 소 중 등	72	78	150	학 교	유 소 중 등	22,160
		53	64	117			18,341
		31	252	283			46,135
		23	70	93			51,720
학 교	유 소 중 등	13	48	61	학 교	유 소 중 등	
		13	48	61			6,776,080
		2,375	4,248	6,623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습	원입
2,632	2,363/3,640	1,365/2,507	303/238	225/336	470/559

장로, 명예보다 더 무거운 그 책임

“장로라는 교회의 귀한 직분까지 받고 보니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전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겠고” 장로장립을 축하하는 인사 말에 천천히 입을 여는 김영삼(金泳三) 장로! 지금까지의 정치생활 중에 얻은 어떤 명예보다 장로장립을 더 명예롭게, 귀하게 생각한다—이것은 그가 바로 장로장립하는 날 답사에서 남긴 말이다.

이어서 그는 자기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느냐? 선(善)이 지배하는 나라, 미국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찾아보게 되지요” 하고는 잠시 침묵을 지킨다.

어릴 때부터 젖은 교회생활

김장로의 세 동생이 차례로 죽은 데에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미신을 버리고 교회로 나갔다. 할아버지는 미신이 극심한 동네를 복음화시키려고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신명교회이며,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 교회에 출석했다. 그후 국제적인 신앙생활, 아버지께서도 교향 교회의 장로이며, 현재 부인 손명순 집사는 장년부 교사로, 둘째딸 김혜영씨(이태대학원 재학)가 제일성가대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보람된 일의 하나”라고 강조하는 그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끝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일찌기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우리가 기뻐 언덕은 없다」 「정치는 길고 정권은 짧다」 「40대 기수론」 등의 저서가 있다. 1974년 미국 메릴랜드주 타운슨(Towson) 주립대학에서는 그가 자유세계의 민주제도와 실천에 있어 기여한 일이 국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주었다. 100주년의 역사적 전통이 있는 그 학교가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베푼 영광이었다.

정치신조—정정당당한 방법

그는 6·25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지금까지의

26세의 젊은 나이로 국회의원이 되어 20여년 흐르는 동안, 이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간의 눈부신 활동, 정당의 한 지도자로서의 그의 위치—그는 어느모로 보든지 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가 지난 5월에 총현교회 장로가 되었다.

5월 29일 예배 후, 편집실에서는 김영삼 장로를 맞아 편집국장 조선근 집사와의 대담의 시간을 마련하고, 이어 월간총현 간사들과 간담의 시간도 가졌다.



◇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한다 김영삼 장로.

정치생활 역시 평탄치가 않았다. 그의 정치철학은 「모로가든 바로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 아니고, 서울에 갔다는 「결과」보다 어떻게 서울에 갔느냐의 「방법」이나 「과정」을 중시한다. 그런 정도(正道)의 고집 탓으로 크고 작은 승리와 패배를 수없이 맛보았다고 털어놓는다. 다섯 차례의 야당 원내총무를 거쳐 신민당 부총재·총재를 거쳐 지금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당고문과 한국문제연구소 소장으로서 여전히 정치 일선에 서 뒹고 있다.

어려운 성도의 사회생활

그는 크리스찬으로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다른 어려움, 말 못할 사정과 피로움이 있다. “정치하는 데는 가기 싫은 곳도 가야하고 국내외로 여행하는 일도 잦은데, 내 아내는 ‘주일성수를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해주지만 주일에도 이런 저런 모임이 자주 생기고……” 불참하다 보니, 만나야 할 사람들과의 접촉이 끊기고 사회와 등지는 것 같은 때가 있다며, 이것은 우리 사회에 신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 아니냐 한다. “주일인 오늘날 해도 대배가 들이닥쳤는데 꼭 만나야 했던 분들이었는데 다음으로 미루고 교회에 간다고 일어섰지요.”

나라와 교회 위한 더 큰 집

정계에 몸담은 한 성도로서 부탁치는 솔한 어려움이 그칠 새 없는 중에서도 나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제 장로로서 할 일이 더욱 많아진 그에게 앞으로 교회나 교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인가 여쭙어보았다.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개인이 정치에 참여, 여당도 야당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교회가 어느편에 치우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당이 되거나 야당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교우들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리/조선근 집사>

기 자 석

○...7월의 삼복더위는 권태와 게으름을 동반케 한다. 정신적인 상태까지 나태하게 되어 신앙의 희의를 느끼게도 하는 달이다.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회의를 회의에서 그치지 말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회의기로 맞아 보는 것이 현명치 않을까?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보혈의 피인줄 깨닫고 주님의 피값에 의한 속죄의 체험을 위해 오늘도 조용히 인격적인 간구를 드린다. “웨말인가 날 위하여 주들이 가셨네”라고 고백하는 생활 속에서 참기쁨과 참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기를 회구해 본다.

○...피서의 인파가 유명한 피서지에 이 해도 몇명이다. 통계난에 신문들은 광분한다. 피서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피인(?)이 되어야 할 현실인 듯하다. 특히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이 피서할 수 있는 곳으로 피서를 가야겠다. 가장 위대한 성도는 사람의 교제에서 종종 떠나 뉘수있는 대로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즐긴다 라는 것을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성도로서의 피서도 조용한 가운데서 자신의 내적 영적 성장을 위해 올바르게 해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즘을 관광사업정책이 오락관광유치보다 사무용관광에 중점을 주듯이 오락을 위한 피서보다 사무적 용무의 피서가 성도들에게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이제 우리교회도 많은 부흥을 하게 되었다. 의면적으로 많이 나타난 선교사업! 그동안 많이 부르짖은 선교에 대한 사명감, 소명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 선교사업을 시사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업에 참여의식을 느끼고 많은 기도와 열성으로 준비를 해 왔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닌 채 거대한 북한 선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한다.

○...어느 주일 오후에 교회를 찾아온 한 거지가 있었다. 내가 문앞에 나가려 할 때에 앞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점심을 못먹어 배가 고프는데 돈 있으면 백오십원만 있으면 주세요.”하고 말을 걸어

왔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줄을 몰랐다. 금방 돈을 줄 수 있으리만큼 용기가 나지를 않았다. 다시 말을 걸어왔다. “아까 저쪽에 가서 돈을 달랬더니 10원을 주지 않아요? 이 돈으로 무슨 점심을 먹겠어요?” 하기가 정말 그렇다. 10원으로 무슨 점심을 먹겠는가. 옆에 계시던 한 분 선생님이 백오십원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시면 아저씨가 같이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줍니다.” “에! 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돈으로 점심을 먹고 꼭 예수 믿겠어요.” 하면서 가버렸다. 그렇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는 못할망정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 사람은 놓치지 말고 예수를 전해야 한다. 그 방법이 물질이나 인간의 따뜻한 정으로 대할 수도 있지 않는가. <원>

○...최근들어 국내의 많은 기업체에서도 원가절감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또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오던 새마을운동이 서서히 그 열매를 맺고 있기도 하다. 이와같은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제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종이 한 장, 불필한 자루를 아껴쓰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의 경영의 승패는 원가를 낮출 수 있는냐에 달려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꽤 실감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너무 유치한 것 같고, 인색한 것 같은 이 운동이 기막히게 성공하고 있는 점이다. 그런 운동의 이면에도 모든것은 내것처럼 생각하는 정신력명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 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내가 내는 현금이나 교회에서 적립된 현금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다만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잘 맡아 정리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각부에서 찍어내는 유인물의 적정량 초과, 불필요한 전기사용, 나아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만들든 건축헌금봉투, 기타 등등 우리가 신경쓰고 생각하면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절약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풍부하기에 넉넉하게 쓰는 여유는 좋으나 필요 이상의 사용은 역시 우리에게 다소의 부담을 줄 것이다. 이제 우리교회도 조금 늦었지만 절제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형>

표지 설명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이 힘겨워하는 명예를 함께 지는 것은 그들을 위한 봉사자 아니라 그들에 마땅히 지를 되어야 할 의무이다. 한국의 도시교회는 농어촌교회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무관심과 자만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마다 실시되는 충현교회의 「농어촌전도 대파송」은 비단 이런 이유에서 뿐만은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월 간 총 현

7월호 통권 제43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7월 17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송 순 일
주 간/정 관 일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36
27-9937-9738
29-7726(편집실)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6.25사변 제27주년 통일기원예배가 지난 6월25일 휴전선 근방 통일촌교회에서 북한선교회(이사장:김창인목사) 주최로 있었다.



◇ 6.25 제27주년을 맞아 임진강변 임진각에서 「주여, 이 민족에 통일을 주옵소서」의 기원예배를 77년 민족복음화성회 주최로 드렸는데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설교를 담당하였다.



◇ 농어촌교회 교역자초청훈련이 예정대로 6월20-24일(5일간) 본교회 성경학원 주관으로 있었는데 3년째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 지역에서 68명의 교역자가 참가했다.



◇ 7월 6-9일(4일간)에는 서부전선 전방사단에서 군종유신교육이 있었는데, 이 군종사병훈련(60명)에 본교회에서 정기성목사를 비롯 이성근목사, 김하진목사, 이승근전도사가 감사로 다녀왔다.



◇ 총동원의 달이던 지난 6월19일에는 각 부서별로 주일예배 후 오후 적당한 시간을 이용, 병원·갱생원·소년원·구치소등을 찾아 집중전도를 실시했는데 유년부 어린이들도 참여하였다.



◇ 중현성경학원졸업식(보통반은 제3회, 연구반은 제2회)이 7월3일 주일 저녁에 있었는데 이와함께 제11기 지도자양성부(78명)의 수업식도 있었다.



복음을 들으러 말타고 가자

1740년 10월 23일, 미국 대서양 연안 동북부 뉴잉글랜드지방 미들타운에서는 젊은 부흥사 조오지 윗필드(G. Whitefield, 1714 ~ 70)목사가 인도하는 대집회가 있었다. 수많은 청교도들이 사방에서 저명한 윗필드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일손을 멈추고 구름떼같이 몰려들었다. 농부인 네이단 쿨은 좀더 빨리 가기 위해 아내와 같이 한 필의 말을 타고 이웃사람들과 함께 그 집회에 달려갔다.

위의 그림을 가만히 보노라면, 복음을 들으러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기쁨이 우리의 운몽에도 넘쳐온다.

우리도 복음을 들으러 달려나오자!